

아피스(Apis) 황소상.

양뿔 사이에 코브라에 감긴 태양을 이고 있다. 아피스 황소 신은 프타(Ptah, 공예와 기술의 신으로서 미라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멤피스의 수호신)라는 신의 성스러운 동물로 간주되었다. 또 고대 이집트에는 사랑과 아름다움과 기쁨의 여신 하토르(Hathor)가 암소로 형상화되었다. 하토르는 바로에게 신성한 젖 곧 영양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에베소의 동요의 여신 아데미 신상들, 머리에 성막을 이고 있고, 가슴에 24개의 젖가슴 혹은 24개의 황소 고환을 매달고 있다.



그레테의 파에스토스의 주화(c. 360-50 BC)

전면에 에우르페(유럽)가 바위에 앉아서 오른손을 흰 황소의 머리를 향해 내밀고 있는 황소성애자의 모습을 새겼고, 뒷면에 헤르메스가 오른손에 카두케우스를 들고 바위에 앉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을 새겼다. 흰 황소는 난봉꾼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다. 크레타의 전설적인 왕 미노스는 멋진 흰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가 에우르페를 크레타로 납치해서 낳은 아들이다. 결국 미노스는 수간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크레타인들은 황소의 자손인 셈이다. 이처럼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 미노아 문명(3650-1170 BC)의 중심에는 황소성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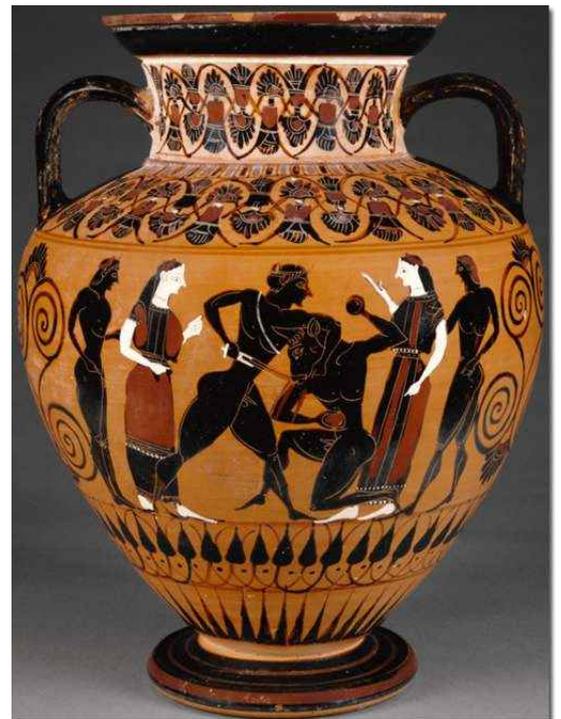
그레테의 크노소스 테트라트라크마 은화(c. 200-67 BC)

전면에 머리에 띠를 두르고, 수염을 기른 그레테의 전설적인 왕 미노스(혹은 제우스)를 새겼고, 뒷면에 장인 다이달로스가 고안한 미궁을 새겼으며, 둘레에 크노소스의(KNOC-Σ-Ι-OCN)라고 썼다.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의 아들이 많은 것은 고대의 왕이나 황제들이 신성 또는 신의 아들로 착상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크레타의 전설적 왕인 미노스는 제우스가 에우르페(유럽)를 크레타로 납치해서 낳은 아들이다.



그레테의 크노소스의 헤미트라크마(두 데나리온) 은화(420-380 BC)

전면에 인간의 몸을 하고 뿔과 꼬리는 황소 모습을 한 미노타우로스(Minotaur)가 무엇인가(물?)를 손에 쥐고 뛰는 모습을 새겼고, 뒷면에 미노타우로스가 갇힌 장인 다이달로스가 고안한 미궁을 새겼다.



아테네의 흑도화(Attic Black-Figure) 암포라(550BC)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살해하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아리아데네가 테세우스 뒤에서 응원을 보내고, 파시파에가 미노타우로스 뒤에서 항의를 표시하는 듯하다. 이 두 여인은 모노코르시 폭정에 눈이 멀었던 크레타인들이다.

아테나의 영웅 테세우스가 물리친 미노스의 아들 미노타우루스(미노스의 황소)도 미노스의 부인 파시파에가 포세이돈의 흰 황소와의 수간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미노타우루스는 몸체만 인간이고 얼굴과 꼬리는 황소였다. 황소성애자 파시파에는 당시 크레타에 있던 명장(名匠) 다이달로스에게 자신의 욕망을 말한다. 다이달로스는 파시파에를 위해 나무로 된 정교한 암소를 만들어주고 파시파에는 그 안에 들어가 포세이돈의 황소와 수간하였다. 크레타에 흰 소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크레타의 주화에도 황소가 많이 등장한다. 유대-그리스도교 복음이 지중해 연안 문명세계가 피조물에 신성을 부여하고 신성을 참칭하여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던 것을 야훼만을 섬김과 예배의 대상으로 바꿔놓았고, 야훼이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선용과 보존의 대상이며, 만인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사상, 인도주의사상, 사회책임사상을 갖게 하였다.



아티카(ATTICA)의 아테네(Athens, c. AD 145-175)의 트라크라 전면에 투구를 쓴 지혜와 용기의 여신 아테나를 새겼고, 뒷면에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장인 다이달로스가 고안한 미궁에 들어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는 장면을 새겼으며, 좌측에 Athena라고 썼다. 그레테의 왕 미노스의 아들 안드로게오스가 아테네에서 열린 경기에 참가했다가 죽임을 당한 대가로 아테네는 9년에 한 번씩 청년 7명, 처녀 7명을 미궁으로 보내 미노타우루스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대에 정착할 무렵의 바알 신앙을 히브리어로 하나임을 뜻하는 '엘'이 알렘(황소)과 라메드(지팡이)로 이뤄졌고, '엘'은 바알의 아버지 신 곧 'father-bull'이다. 시내산에서 '야훼와 언약관계를 맺은 히브리인 유목민들이 가나안 농경 문화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나안의 신, '엘'을 '야훼'와 일치 또는 동등하게 '엘-야훼'로 숭배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페르시아의 쿠루스(Cyrus, 고레스) 황제 때 수메르의 신 '벨'과 바벨론의 신 '마르дук'이 합쳐져 '벨-마르дук'으로 숭배된 것과 같고, 헬라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때 이집트의 신 '아몬(아مون)'과 헬라의 신 '제우스'가 합쳐져 '아몬(아مون)-제우스'로 숭배된 것과 동일하다.



아우구스투스 황제(Augustus, 27 BC - AD 14) 시대의 루카니아의 성 루스트라 동전 전면에 월계관을 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IMP AVGVSTI(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홀라 과베를 손에 쥐는 황제가 황소 한 쌍에 멍에와 거리를 지워 성내의 신성한 밭을 일구는 모습을 새겼다. 상면에 COL IVL FEL CEM(경건한 게르마니쿠스 율리우스의 정착지)를, 하면에 LVSTRA(루스트라)를 새겼다.



화환을 목에 건 황소 부조가 새겨진 제단들(비시디아 안디옥)
참고: 사도행전 14:13



살리는(gives life) 일을 하는 영웅은 희망(민심의 끈을 놓지 않는 자이다).



루카니아의 성 이고니온의 동전(Diassarion) 전면에 월계관을 쓴 베스파시아누스(AD 69-79)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IMP CAESAR VESPASIAN AVG(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COL IVL AVG(율리우스 아우구스투스의 정착지)를, 그 옆에 풍요의 밭을, 하면에 과베를 손에 쥐는 황제가 황소 한 쌍에 멍에와 거리를 지워 밭을 일구는 모습을 새겼다.